

대한양계협회소식



산란종계 및 산란업계 대표자 협의회 부회장, 산란계 임의자조금 수납기관 어려움 표명



지난 2월 28일 본회 회의실에서는 산란종계 및 산란업계 대표자 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산란계 자조금 거출기관지정 논의를 위해 열린 이번 회의는 계란소비홍보와 교육 및 정보제공을 위해 부회장을 수납기관으로 지정하여 임의자조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모색하였지만, 부회장 측에서는 환우 농장 및 중추농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비롯하여 자조금이 의무화되지 않는 이상 부회장을 거출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결국 유명무실할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부회장 측은 선진사례와 같이 지속가능 한 점을 고려하여 시일이 걸리더라도 집하장을 수납기관으로 지정하여 최종산물에 따라 공평하게 납부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검정위원회 검정계 성적 검토



지난 8일 본회 회의실에서 검정위원회(위원장 오봉국)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 77회 육용검정계 최종성적, 제 40회 산란검정계 최종성적에 대해 심의 및 평가를 가졌다. 현재 시행하는 준육용계의 검정주령에 대해 10주로 시행하는 것은 출하시 상품성을 최대로 고려하여 적절한 검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위생방역대책위원회 양계질병 지속적인 연구와 관찰 필요

지난 9일 본회 회의실에서 위생방역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선중)가 개최되었다.

고병원성 AI 지침사항, LPAI 백신시행, ND 살



처분 보상과 효율성 제고 방안 등 최근 발병하는 질병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진행되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살처분 범위에 대한 논의와 농가피해보상에 대한 부분 등 SOP의 추가적인 보완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저병원성 시 백신의 시판을 앞두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변이주에 대한 관찰을 주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를 강조하였다.(본문 104 페이지 참조)

**육계자조금공동준비실무위원회
빠른 시일내에 대의원총회 개최**



지난 14일 본회의회의실에서 육계의무자조금공동준비위원회 실무위원회가 개최되었다. 농림부 조정래 사무관과 공동준비위원인 농협중앙회, 대한양계협회, 한국계육협회의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의원회 개최 및 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제 4차 대의원총회는 고

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종식되는 빠른 시일내에 개최하여 관리위원 및 감사의 선출건을 다루어 자조금 거출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협의하였다. 또한 추진 성과에 따라 육계의무자조금의 내년도 정책 지원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하였다.

**종계부화분과위원회
불법종계·부화장 고발센터 공식출범기로 결의**



종계부화분과위원회 월례회의가 지난 14일 본회의회의실에서 개최되어 종계장 육성계사 시설개선 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종계장 육성계사 시설개선 사업 추진사항’에 있어 4만수 이하 육성농장의 경우 축산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부화업·종축업등록을 필한 업체 및 개인 종계업자이며, 4만수 이상 육성농장 경우 농림부장관, 시·도지사로부터 계열화사업자로 선정된 자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대상을 규정하면 일부 대상자들이 제외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원대상에 모든 종계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규정에 대해 자율성을 열어줄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불법 종계·부화장 고발센터(가칭)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기로 결의하고, 한국도종닭협회(회장 김연수)와 협조체제를 구축하

여 공동운영기로 했다.

본 센터가 설치, 운영될 경우 오랫동안 묵인되
었던 무등록종계·부화장에서 생산되는 종란과
병아리, 불법 토종닭 생산 및 사육, 백세미 씨알
생산계군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
다.

채란분과위원회

채란인, 동의서 협조로 자조금 재 건의키로



지난 6일 본회 회의실에서 채란분과위원회(위
원장 김선웅)가 개최되었다. 산란종계 입식수수
는 25,600수로 전년동월대비 82.9% 증가하였
고, 산란사료 생산실적은 176,525톤으로 전년동
월대비 4.8% 증가하였다.

지난 2월 28일 개최된 산란종계 및 산란업계
대표자 협의회에서 임의자조금 수납기관으로 부
화장의 협조를 얻으려고 하였지만 어려울 것으
로 보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채란분과위원회에서는 적극적
으로 전국의 채란인들에게 자조금 납부 동의서
를 취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각 지회·지
부를 통해 채란농가는 물론 대군업자의 협조를
독려하기 위해 산란개발전협의회에 협조를 요청
할 것을 협의하면서 부화장과의 재협상을 논의
하자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육계분과위원회

계열사별 농가협의회 구성



지난 21일 대전 대온장에서 육계분과위원회
(위원장 장재성)가 개최되었다. 오는 9월 생산잠
재력은 45,504천수로 전년동월대비 11.3%가 증
가될 것으로 보고하였다. 지난 14일에 개최된 자
조금준비위원회 실무협의회에서 육계자조금 추
진건에 대해 타 축종 대의원수?관리위원수와 비
교 또는 육계자조금예산 등을 감안하여 우선 10
명의 관리위원으로 운영하면서 필요시 증원키로
결의된 내용을 보고하였다. 단, 감사 2인을 대의
원수가 많은 도에 배정키로 하였다. 그 외 계열
사와 관련하여 농가들의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
해 계열사별 농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위탁농가의
권익향상과 병아리 품질저하 및 위탁거부 등 불
공정 관행을 타파하며, 계열사와 위탁농가간의
대화창구를 마련하기로 결의하였다.

[지회 · 지부소식]

광주전남도지회

2007 정기총회 개최

광주전남도지회(지회장 윤한성)는 지난 16일 도
지회 회의실에서 2007 정기총회를 갖고 2006년



예산집행 결산 및 2007년도 추진사업 및 예산(안)을 심의,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윤한성 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HPAI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제하고, 계란유통변화, 사료값 폭등, FTA 협상 등 어려운 여건에도 농가들이 변화에 대처해 불황을 타개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2006년 양계업계를 위해 공헌한 분들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공로상에는 남상현(선진농장) 사장이 본회 회장상을 전수받았으며, 안명수 광주축협조합장의 3명이 감사패를, 강희채(백운농장)사장의 2명이 각각 공로패를 시상하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오정길 한국양계조합장, 안명수 광주축협조합장, 전주화나주축협 조합장 등 외부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상무이사 영입

광주전남도지회(지회장 윤한성)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김희정 상무이사를 영입하였다. 김 상무는 광주전남도지회를 주축으로 지역 양계인들의 끊임없는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 김희정 상무이사

제주도지회 김해규 신임 지회장 선출

제주도지회(제주한라양계영농조합법인)는 지난 2월 28일 정기총회에서 2007년도 추진사업 및 예산(안)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김해규 신임 지회장(대표이사)을 선출하였다. 제주지회는 올해 초 계란등급판정업체로 지정 받는 등 소비자들에게 품질 좋은 계란공급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번에 선출된 김 지회장은 협회를 중심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다짐하였다.



▲ 김해규 지회장

충북도지회 정기총회 개최



충북도지회(지회장 이준동)는 지난 9일 충북농업기술원회의실에서 지부장 및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07년도 지부별 회비 납입 예산안을 의결했다.

양계협회 충북도지회는 이날 2007년도 사업목표를 양계산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유지, 양계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 회원의 복리

증진과 도지회 기능 내실화를 통한 의무자조금 사업 적극 추진, 도지회 사무실 이전 및 충북 양계인 단합대회 개최 등으로 정했다.

이 지회장은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의무자조금 사업이 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양계산업과 도지회 발전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준동 지회장, 신지식농업인 인증패 수상

지난 21일 aT센터에서 2007년도 신지식농업인 인증패 수여식이 개최되면서 양계부문에



서 이준동 충북도지회장이 신지식농업인 인증패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 상은 창의성, 실천성, 가치창출성, 자질 등을 고려해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신지식농업을 주도해 나갈 신지식농업의 중심인력으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생산자·경영자의 의미가 부여된다. 정부는 신지식농업인이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통한 지식농업의 확산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각종 정책자원이 지원된다.

전북도지회

2007년 정기총회 개최

전북도지회(지회장 박옥룡)는 지난 2월 28일 지회사무실에서 2007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과 규정개정(안)이 심의 승인되었다.

이날 강종석 이사(서현농장 대표)에게 본회가 수여한 공로상 전수식이 진행되었고, 회원 증가 운동 등 지회 활성화를 위해 활동력 있는 운동을 벌일 것을 다짐하였다.

대구경북도지회

2007 추진 계획 논의

대구경북도지회(지회장 김점훈)는 지난 2월 26일 2007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한 해 산란계·육계동향과 올해 전망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고, 2007년 추진계획으로 양계농가시설 개선경영자금 추진과 함께 질병세미나 및 간담회를 통해 당면현안을 파악하고, 소비증진을 위해 양계산물 시식회를 개최할 것을 계획하였다. 김 지회장은 지역 발전과 회원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서는 도지회를 만들어 갈 것을 다짐했다.

경기도산란지부연합회

현판식 개최

경기도산란지부연합회(연합회장 오세을)는 지난 23일 남양주시 연합회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각 지부장 등 양계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현판식에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축산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과 새로운 다짐을 갖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서산지부

부지부장 추가 선임

서산육계지부(지부장 이동용)는 지난달 정기총

회를 갖고 임원진을 연임시켰으며, 추가로 박일수 씨를 부지부장으로 추가 선출하여 지부 활성화를 기하기로 하였다

**괴산육계지부
질병 교육·주기적 컨설팅 강화**



괴산육계지부(지부장 김원상)는 지난 8일 괴산 증평축협 회의실에서 이준동 충북도지회장, 이재하 괴산군청 축산계장, 회원 4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가 경영개선을 위한 양계 컨설팅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김원상 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닭값 하락 등 양계농가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어려울수록 우리 농가들은 교육과 방역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김 지부장은 또 “앞으로 양계협회 괴산육계지부는 질병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모든 컨설팅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회원들은 협회를 중심으로 단합하고 단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컨설팅 교육에서는 충북대 모인필 교수를 초청해 양계장에서의 효과적인 감보로 대처 방안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

**상주육계지부
육계농업인 전진대회 개최**



상주육계지부(지부장 이성희)에서는 15일 오후 6시30분, 상주관광호텔 무궁화홀에서 이정백 상주시장, 김진욱 상주시의회의장, 장재성 (사)대한양계협회육계분과위원장, 경북양계협회 시·군 지부장, 농·축협 관계자, 육계사육농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상주육계농업인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옥경 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가금질병’에 관한 특강을 실시한 후, 참석한 회원 간 단합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성희 지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난해 11월 25일 전북 익산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 전국 곳곳에서 발병하였으나, 전국 제일의 육계 집산지인 상주에서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은 시 관련부서의 행정지도와 육계농업인들의 철저한 방역자세와 분위기 조성에 힘입은 결과로 앞으로도 육계산업 발전에 다함께 노력하자”고 전했다.

현재 상주시의 육계생산 현황은 사육농가 80호에 1천3백만수로 전국에서 생산량 8퍼센트를 점유해 전국1위 생산지역이고, 또 상주시 관내에는 육계가공공장인 (주)울품과 양계 부화장인 (주)아베스뱅크 등의 관련시설이 있다.